

현장에서 잡힌 여인

말씀 / 요한복음 8:1-11

요절 / 요한복음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건 :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셨다.

†죄의 심각성과 죄문제의 해결책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치 않으시는 예수님

1.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2)?

☞ 예수님께서서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7장에서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절 축제를 즐겼습니다. 초막절이 끝나자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영적 힘을 얻으시고 죄악된 시대와 타락한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양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초막절 : 7일간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출애굽 후 광야의 장막생활을 기념함. 이는 출애굽 후 광야생활중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나오셔서 영적으로 갈급해있는 백성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셨다.

2.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까(3,4)? 간음 중에 잡혀 와 공중 앞에 선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왜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 가운데 세웠다.

생각과 행동에서 본이 되고 고상해야 할 종교지도자들은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밤새도록 예수님을 송사할 희생양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 결국 그들은 혈기 등등한 모습으로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다.

서기관 :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을 때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되었고 율법을 복사하는 전문가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서기관임

바리새인 :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유대주의에 충성하는 한 부류가 미카비 시대에 생겨났다.

‘하시디인’이라 불리는 경건집단. 율법을 중시하며 철저히 지켰으므로 당시 민중의 존경의 대상이었다.

† 종교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선한 목자요 좋은 성경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무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법과 약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감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고 사랑과 용서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죽이라고 하였는데(신 22:22), 그들은 연약한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 성에 대하여

성(性)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우 성(聖)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부일처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며, 더 나아가 생명을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성윤리(性倫理)를 제정하셨습니다.

본래 남녀 간의 사랑과 그와 연관된 '성'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녀가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에는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랑을 주제로 쓴 아가서가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 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아가서 1:2,3)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입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입을 사랑합니다."(표준새번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사이의 사랑은 이처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창세기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녀, 곧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이라고 부부가 아닌 아무나 하고 행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바로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혀 온 여인은 다 찢어진 옷이 누더기처럼 걸쳐 있고 맨발에 군데군데 피멍자국이 선명하였다. 그녀는 현행범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다. 그녀의 죄가 모든 사람들앞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죽고 싶었을 것이다. 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이다.

간음 : 결혼한 어떤 사람이 자신과 결혼하지 않은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음란 : 어떤 사람이 그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 성경에 나타난 간음에 대한 말씀

5: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딤후2: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벧전2:11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후2: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육체적 간음뿐 아니라 정신적 간음과도 싸우는 거룩한 투쟁 필요하다.

☞ 여인의 상태 :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쾌락에 이끌려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여인
† 그러면 여인이 왜 엄격한 율법 사회에서 간음을 했을까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도 원치 않게 죄를 지었을까? 이러한 행동의 동기는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에는 짜릿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즐기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그만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일단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력에 이끌려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음란 비디오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큼니다. 음란 비디오를 본 자들은 그 정신이 황폐하게 되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정욕은 건전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재능을 말살시켜 인간을 못쓰게 만듭니다. 심하면 정신 질환에 걸려 미치게 됩니다. 미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내면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롬6:23a)

롬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조) 고교생 11% 성경험(2001년 2월 6일 sbs 8시 뉴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호서대에 의뢰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녀 고교생 중 11%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학생(8.1%)보다 남학생(13.5%)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도 0.7%나 됐습니다. 임신을 시키거나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2.2%, 여학생의 10.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임신 후 해결방법은 인공유산이 76.8%, 자연유산 8%, 입양 4.5%, 그리고 낳아서 기르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10.7%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의 성교육이 너무 피상적이고 지루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보고 청소년 성교육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3.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입니까(5)?(참조, 신명기22:22) 죄의 성질과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 사람들로 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녀의 무덤은 돌무덤이 될 것이다.

신명기22:22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 죄의 성질과 죄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간음죄를 중심으로).

죄의 성질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인간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며 정죄 받아야 한다. 죄에는 쾌락이 있다. 습관적이다. 수치심과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 중독성이 있어 스스로 죄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죄의 결과는 범죄 한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사망, 생활의 곤란(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음), 육체적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형벌로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죄는 한 번 즐겨볼만한 것, 해보고 그만 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간음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알아보자.

간음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 사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개인에 있어서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며, 심한 죄책감으로 인해 정신 질환에 걸리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인간이 육체(고기 덩어리)로 전락하여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만다.

갈5: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고전6: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잠6:26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6:32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이 파괴된다.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한다. 우리나라에도 갈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결손가정 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에 있어서는 가정파괴로 인한 수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한 사회를 붕괴시킨다.

예) 로마제국의 멸망, 노아시대의 홍수심판, 소돔·고모라의 멸망

오늘날은 간음을 죄로 인정치 않는 추세이다. 사랑이란 명목 하에 혼전성관계를 당연시하고,

충동을 부추기는 광고가 만연한. 캠퍼스 주변도 음란 video, 음란서적 가득하다.

4.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4,5)? 또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6a)?

☞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였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가?

첫째,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게 되면 로마법에 저촉되어 살인 교사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는 모순을 범하게 되어 백성들로부터 이중인격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만일 돌로 치지 말라 할 경우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 유대 종교상의 고소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 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6b)?

☞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종교지도자들의 사악한 질문에 맞서 무엇인가 땅에 쓰셨다. 이는 살벌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자 함이었다.

6.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그쳐 묻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7)?

☞ 종교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죄없는 자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내면에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소원과 생각도 없는 100% 순결한 삶을 산 자를 말합니다.(헬, ,아나마르테토스) 또한 먼저 친자는 공회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먼저 칠 수 없었다.

첫째,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지만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살펴보다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롬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나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7.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다(9a)?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 종교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 까지 하나씩 하나씩 성전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뒤에서 호박씨 켜던 죄악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

☞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8. 오직 누구만 남게 되었습니까(9b)?

☞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9. 예수님은 혼자 남은 여인에게 무엇을 물어 보셨습니까(10)? 이를 볼 때 사람이 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까?

☞ 예수님은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사람의 정죄와 판단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롬3:11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 또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11a)? 그러나 누구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참조 히4:15, 요5:22)

☞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 율법대로 돌로 치실 수 있으시며 계시록의 말씀대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처넣으실 수 있다.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11.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11b)?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또 무슨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사죄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요 여인은 그 앞에 선 죄수입니다.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를 정하게 되면 여인은 정죄를 받게 되고, 사면을 내리면 무죄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운명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면을 내리심으로 여인을 옴아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여인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 정죄의식에서 해방된 사람들

예1)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좌경 분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전도집회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죽여라'고 죽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깊은 정죄 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나도 죽고 싶다. 죽여 달라. 왜 날 살려 놓고 이 고통을 줍니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 목사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이 용서를 믿어야 한다. 죄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2) Martin Luther(1483-1546)가 종교개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정죄 의식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많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 대해서 신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면 언제나 마귀는 날 기다리고 있다. 그가 날 괴롭히기 시작할 때 나는 말한다. '이 마귀야, 잠자야겠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거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그러니 제발 가 줘!' 그래도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죄목을 들고 나오면 말한다. '그래 이 친구야, 다 알고 있어. 자네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그렇지만 나는 사단과 논쟁하지는 않았다. 그 놈은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잡고 늘어졌단다." 그는 바울의 메시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7:24-8:2). 그가 일생 동안 변함없이 힘차게 주님과 그 역사에 헌신할 수 있었던 힘은 용서였습니다.

☞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여자를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벧전2:24 친히 나무에 달려 대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갈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롬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죄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사람들의 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율법도, 인간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소욕을 없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영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얹어매었던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하시 파괴된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으로 가득찬 사회를 참된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회로 변화시키십니다.

예1) 칼 하임은 '용서의 위력'이란 책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감동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은 비텐베르크 보다 훨씬 전 1505년 여름 루터에게 일어났던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루터는 젊고 총명한 법학사로서 에르후르트 깊은 숲속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번개와 뇌성이 쳤다. 젊은 루터도 예상치 않은 공포속에서 갑자기 죽음과 하나님앞에 서게 되었다. 번개가 한꺼번에 주위를 환하게 밝혀 주었다. 그때 루터는 다만 짧은 거리로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숲속에 엎드렸을 때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내 죄의 용서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받기를 간구할 때 롬1: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영접하였다.' 그는 자기 대신 피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용서의 사랑'을 생생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믿었을 때

암흑을 벗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2) 손양원 목사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두아들에게 총을 쏘아 죽인 공산당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되 오히려 양 아들 삼고 주의 종으로 키웠습니다. 누구든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 예수님은 여인에게 은밀히 쾌락을 즐기던 삶에서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자 투쟁하도록 인생방향을 주셨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즐기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여인으로써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받은바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공주답게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생활입니다.

정욕의 유혹은 끈질기다. 단순히 회피하기보다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죄와 싸워야 한다.

롬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 사람이 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 사람들은 어떻게 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1. 죄를 잊고자 한다(공(空)). 그러나 죄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하게 된다.
2. 도를 닦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3. 사우디와 같은 회교권은 아직도 율법적으로 사람을 심판하지만 죄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정죄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자.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공동번역

1절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2절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절 그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내세우고
 4절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절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6절 그들은 예수께 올라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7절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9절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하나 가 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10절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11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표준새번역

1절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2절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4절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 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 7절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 8절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 9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 10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NIV

- 1절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 2절 At dawn he appeared again in the temple courts, where all the people gathered around him, and he sat down to teach them.
- 3절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brought in a woman caught in adultery. They made her stand before the group
- 4절 and said to Jesus,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 5절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Now what do you say?"
- 6절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in order to have a basis for accusing him. But Jesus bent down and started to wri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 7절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 8절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 9절 At this, those who heard began to go away one at a time, the older ones first, until only Jesus was left, with the woman still standing there.
- 10절 Jesus straightened up and asked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 11절 "No one, sir," she said. "Then neither do I condemn you," Jesus declared. "Go now and leave your life of sin."

NKJ

- 1절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 2절 Now early in the morning He came again into the temple, and all the people came to Him;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m.
- 3절 Then the scribes and Pharisees brought to Him a woman caught in adultery. And when they had set her in the midst,
- 4절 they said to Him,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adultery, in the very act.
- 5절 "Now Moses, in the law, commanded us that such should be stoned. But what do You say?"
- 6절 This they said, testing Him, that they might have [something] of which to accuse

Him. But Jesus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as though He did not hear.

7 So when they continued asking Him, He raised Himself up and said to them, "He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throw a stone at her first."

8절 And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9절 Then those who heard [it,] being convicted by [their] conscience, went out one by one, beginning with the oldest [even] to the last. And Jesus was left alone, and the woman standing in the midst.

10절 When Jesus had raised Himself up and saw no one but the woman, He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ose accusers of yours? Has no one condemned you?"

11절 She said, "No one, Lord." And Jesus said to her,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sin no more."

NRS

1절 while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2절 Early in the morning he came again to the temple. All the people came to him and he sat down and began to teach them.

3절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rought a woman who had been caught in adultery; and making her stand before all of them,

4절 they said to him,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the very act of committing adultery.

5절 Now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Now what do you say?"

6절 They said this to test him, so that they might have some charge to bring against him. Jesus bent down and wrote with his finger on the ground.

7절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Let any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8절 And once again he bent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9절 When they heard it, they went away, one by one, beginning with the elders; and Jesus was left alone with the woman standing before him.

10절 Jesus straightened up and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11절 She said, "No one, sir." And Jesus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your way, and from now on do not sin again."

